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 성 익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유휴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novation Plans of Idle Spaces
Considering the Locality of Jeju

홍익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정 은 형

2013년 12월 27일



HONGIK UNIVERSITY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유휴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novation Plans of Idle Spaces
Considering the Locality of Jeju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27일

홍익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정 은 형



HONGIK UNIVERSITY

정은형의 석사학위 논문을 추천함.

2013년 12월 27일

지도교수 정 은 형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정은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국 문 초 록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유희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정 은 형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폐산업시설 또는 구 군사시설 등 방치 되어 있는 시설을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역사적, 장소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우선적인 계획대상으로 주목 되고 있으나, 제주도 내에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 공동화되거나 비활성화 돼 하드웨어만 남아있는 공간들이 폐교, 창고, 가옥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건축폐기물 감소와 낙후 이미지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연결된다. 또한 보존의 의무를 갖는 건축을 시공의 경우보다 자유로운 시도가 허용되며, 기존 건물이 목적하지 않았던 공간구성을 통해 불완전함에서 오는 잠재력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내 유희공간을 대상으로 제주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리노베이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에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고유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각 풍토만의 적합성과 명료성을 부여한다. 각 지방마다 지역만의 특이성을 담은 풍토건축을 갖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전통가옥은 화산섬이라는 환경조건과 사회문화적 특이성에 따른 가옥의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특이환경에 대한 대안과 부가가치의 제안으로써 주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주전통건축과 공간의 특징을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 주거형태로 분류하여 확인하였다. 그 다음 지역성을 고려하는 건축에 있어서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 지역 내 동시대 건축의 사례로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과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2014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전국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경면 고산리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와 도의 지원으로 마을유희공간을 활용한 공간조성과 제주의 독특한 자원인 돌을 활용한 체험 민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서 고산남 8길 17-35에 위치한 폐 산업시설을 계획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의 재료와 사용과 더불어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숙박공간인 부티크호텔로서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환경과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공간의 구상을 통해 유희공간의 낙후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재생과 향후 제주 건축적 지역성을 반영하는 건축과 유희공간의 리노베이션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차 례

국문초록	i
표 목 차	vi
그림목차	vii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제주 전통 민가의 이론적 고찰	5
2.1 자연환경	6
2.1.1 화산섬	6
2.1.2 기후	7
2.2 인문사회환경	9
2.2.1 풍습	9
2.2.2 가족제도	10
2.2.3 민간신앙	11
2.3 주거형태	12
2.3.1 주거의 배치형태	12
2.3.2 공간구성형태	13
2.3.3 조형과 재료	14



제 3 장. 제주지역 내 동시대 건축사례	15
3.1 포도호텔에서의 지역성 분석	16
3.1.1 이타미 준	16
3.1.2 포도호텔의 개요	19
3.1.3 적용 요소와 활용 특징 분석	21
3.2 지니어스 로사이에서의 지역성 분석	29
3.2.1 안도 다다오	29
3.2.2 지니어스 로사이의 개요	31
3.2.3 적용 요소와 활용 특징 분석	32
 제 4 장. 유희공간의 부티크 호텔 리노베이션 계획	 38
4.1 프로젝트 개요	39
4.1.1 계획의 배경 및 방향	39
4.1.2 대지 선정 및 분석	40
4.2 공간 계획의 전개	44
4.2.1 디자인 개념	44
4.2.2 디자인 적용계획	45
4.2.3 공간 프로그램	51
4.3 디자인 전개	52
4.3.1 배치도	52
4.3.2 평면도	53
4.3.3 입면도	56
4.3.4 단면도	58



4.3.5 외부 투시도	59
4.3.6 내부 투시도	60
4.3.7 재료 마감표	62
4.3.8 모형 사진	63
 제 5 장 결 론	 67
 도 면	 70
참고문헌	78
Abstract	80



표 목 차

[표 3-1] 이타미 준의 년도 순 주요작품	18
[표 3-2] 포도호텔의 지역성 적용 분석	26
[표 3-3] 지니어스 로사이의 지역성 적용 분석	35
[표 4-1] 고산남 8길 15-37번지	4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4
[그림 2-1] 제주도 위성지도	6
[그림 2-2] 축굽	7
[그림 2-3] 누름줄	8
[그림 2-4] 돌담	8
[그림 2-5] 올 레	9
[그림 2-6] 제주초가 배치의 엑소노메트릭	10
[그림 2-7] 제주초가 배치의 평면구성	10
[그림 2-8] 구좌읍 송당리 김창기씨 가옥 평면도	11
[그림 2-9] 마을에서 주거공간의 연계성	12
[그림 2-10] 애월읍 애월리 김지봉씨 가옥 평면도	13
[그림 2-11] 정낭과 제주 초가	14
[그림 2-12] 육지부 초가	14
[그림 3-1] 이타미 준	15
[그림 3-2] 포도호텔 드로잉	16
[그림 3-3] 포도호텔 내부전경	18
[그림 3-4] 케이스케이드	19
[그림 3-5] 포도호텔 배치도	20
[그림 3-6] 포도호텔의 지붕과 제주전통가옥의 초재지붕	21
[그림 3-7] 제주전통 건축공간의 진입방법	22



[그림 3-8] 제주전통가옥의 우영과 포토호텔의 ‘우영’ 적용	23
[그림 3-9] 제주역새	25
[그림 3-10] 포토호텔	25
[그림 3-11] 안도 다다오	29
[그림 3-12] 지니어스 로사이	30
[그림 3-13] 돌의 정원과 명상실	31
[그림 3-14] 돌의 정원	32
[그림 3-15] 지니어스 로사이의 정낭	33
[그림 3-16] 명상실 입구	34
[그림 3-17] 지니어스 로사이와 성산 일출봉	34
[그림 4-1] 제주도 위성지도	40
[그림 4-2] 관광지로서의 입지	41
[그림 4-3] 도로현황	42
[그림 4-4] 현존상태	43
[그림 4-5] Keyword	44
[그림 4-6] 고산드르	45
[그림 4-7] 외부계획 드로잉	46
[그림 4-8] 기존 건물의 입면	47
[그림 4-9] 계획 입면	47
[그림 4-10] 당산봉과 Site위치	48
[그림 4-11] 당산봉 등고선 지도	49
[그림 4-12] 등고선의 단순화	49
[그림 4-13] Courtyard 모형	50



[그림 4-14] 1층 공간 프로그램	51
[그림 4-15] 2층 공간 프로그램	51
[그림 4-16] 3층 공간 프로그램	51
[그림 4-17] 배치도	52
[그림 4-18] 1층 평면도	53
[그림 4-19] 2층 평면도	54
[그림 4-20] 3층 평면도	55
[그림 4-21] West Exterior Elevation	56
[그림 4-22] South Exterior Elevation	57
[그림 4-23] A-A' section	58
[그림 4-24] B-B' section	58
[그림 4-25] 외부 투시도	59
[그림 4-26] Reception 내부 투시도	60
[그림 4-27] Lobby & Cafe 내부 투시도	61
[그림 4-28] 재료 마감도	62
[그림 4-29] 주차공간과 외관	63
[그림 4-30] 주차공간	63
[그림 4-31] 조경	64
[그림 4-32] 안뜰 입구	64
[그림 4-33] 동쪽 객실	65
[그림 4-34] 1층 대공간	66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근대건축은 무분별한 서구건축 양식의 유입과, 세계적인 양상이었던 국제주의 건축의 보편화로 구축되어 왔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건축계에서는 지역주의가 논의되었고, 한국의 지역성은 전통건축의 형태로 나타났다. 국가단위로서 전통건축의 현대적 적용은 형태적인 모방을 넘어서 공간의 적용으로 고찰되어왔지만, 특정지역과 도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서 지역주의의 상실로 연결되었다.

각 지방마다 지역만의 특이성을 담은 풍토건축을 갖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전통가옥은 화산섬이라는 환경조건과 사회문화적 특이성에 따른 가옥의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특이환경에 대한 대안과 부가가치의 제안으로써 주목된다.

제주의 전통가옥은 건축가 이타미 준과 안도다다오 등에 의해 동시대에 재해석되어졌으며, 그들의 작업에서 공간의 목적성과 환경, 문화적 조건에 각자의 철학을 도입한 제주생태와 풍토건축의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그들이 주목한 제주의 지역성을 분석하여, 설계의 방향성을 구축하고, 부티크 호텔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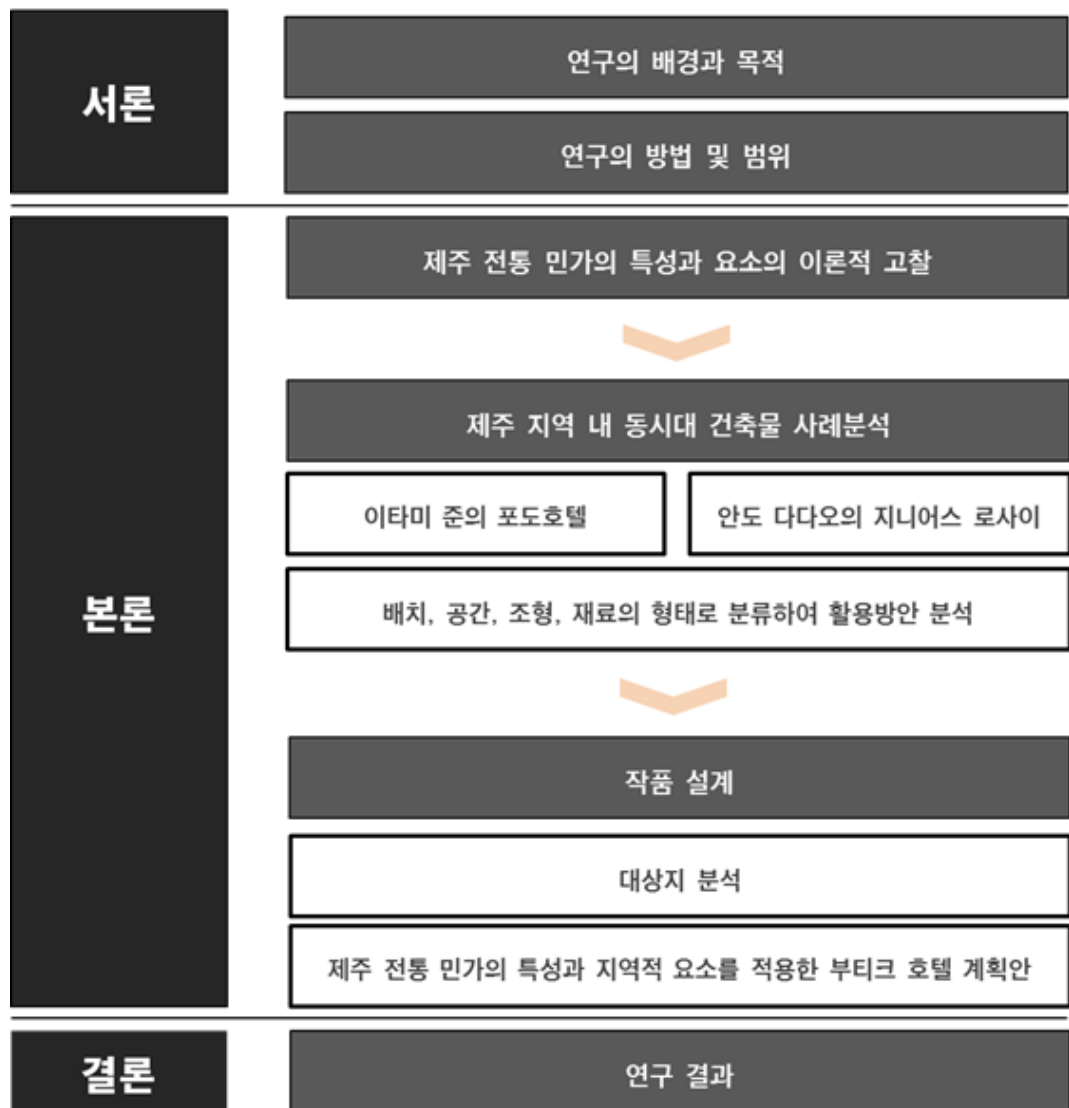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지역성을 적용한 부티크 호텔의 디자인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제주전통민가의 특성을 자연 환경적 요소와 인문사회 환경, 주거형태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3장에서는 제주의 지역적 요소를 도입한 동시대 건축물로 이타미준의 ‘포도호텔’과 안도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를 분석한다. 건축가의 건축관을 소개하고, 작품에서 발견되는 제주전통가옥의 요소를 배치, 공간, 조형, 재료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앞서 연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요소와 특징을 적용한 부티크호텔의 계획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제주 전통 민가의 이론적 고찰

2.1 자연환경

2.2 인문사회환경

2.3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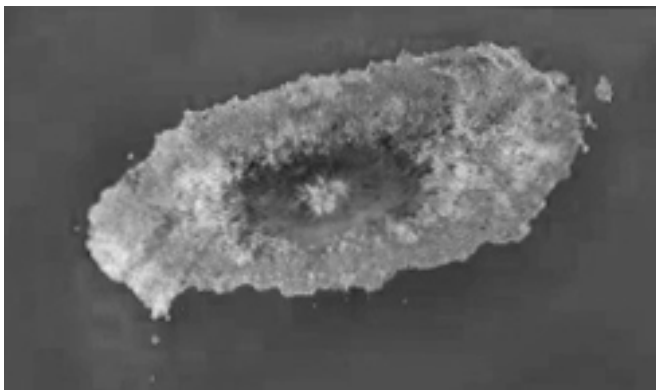
제 2 장 제주 전통 민가의 이론적 고찰

제주의 건축의 지역성은 해양성기후와 화산섬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자연환경과 이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풍습과 인문사회 환경으로 설명된다. 이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주거형태에 따라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1 자연환경

2.1.1 화산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화산섬으로서, 이러한 환경은 지리적 특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그림 2-1] 제주도 위성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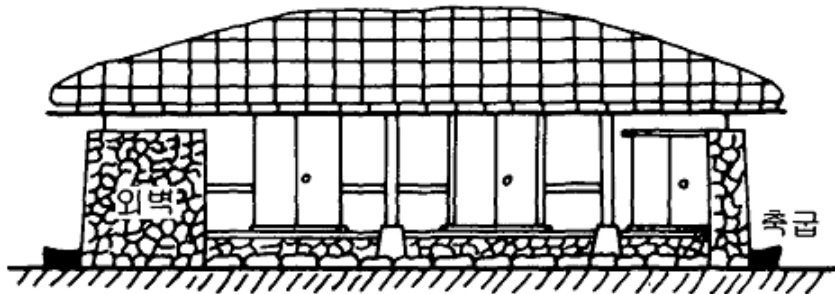
지형적으로 타원형으로 된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지세를 이루며, 300여개의 기생화산이 흩어져있다. 남부가 북부보다 경사가 급하고, 동서로 평야를 이룬다. 토양은 화산토이며, 지표면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물의 흡수되면 경사를 따라 정수되어 바다에서 용출된다. 담수의 요구로 해안가에 취락이 밀집되어 나타난다.

2.1.2 기후

중심에 위치한 한라산과 남북으로 이동하는 기압으로 남부와 북부의 기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해양성 기후로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다. 여름에는 태풍영향권에 속하고, 최대 풍속은 35m/s에 해당한다.¹⁾

강수량에 대비한 시설로는 가옥의 외벽을 따라 처마 밑에 화단을 덧댄 ‘축굽’이 있고,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옥의 첫 번째 요소로는 지붕의 형태를 들 수 있다. 20-22°의 완만한 경사와 둥그런 형태로서 용마름²⁾과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되었고, 그 대신 지붕의 재료인 ‘새’³⁾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름줄’로 격자형을 만들며 처마끼리 연결해 단단히 묶어 놓았다.⁴⁾

돌담은 다공성의 현무암을 막 쌓아 바람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처마 높이와 비슷하게 쌓아 가옥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한다. 남사면일대에는 추가적으로 방풍림을 식재하기도 한다.



[그림 2-2] 축굽⁵⁾

-
- 1) 양택훈, <濟州道 住居建築의 變遷過程에 關한 調査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1989, p.12
 - 2) 용마름, 짚이나 새 따위를 ‘ㅅ’자 형태로 엮어 초가의 지붕마루에 덮는 이엉
 - 3) 새, 띠와 억새 따위의 뿔과 식물
 - 4) 김기덕, <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 경관 특성>, 건국대 석사논문, 1999, p.20



[그림 2-3] 누름줄



[그림 2-4] 돌담

5) 김기덕, <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 경관 특성, 건국대 석사논문>, 1999, p.30

2.2 인문 사회 환경

건축은 자연과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일차적으로 필요조건을 갖추고, 문화와 사회적인 요인에 구체화된다. 육지부와 구별되는 제주 문화의 풍습과 제도, 민간신앙에 따른 주거공간의 특이성을 확인한다.

2.2.1 풍습

제주의 언어와 민속분야,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는 경제와 인류학적 측면에 의해서 설명된다.

해양의 풍족한 양식은 보존에 있어서 제한을 갖게 되고, 척박한 토양에 의해 최소한의 자급자족으로 생활을 영위했던 지역민들은 지역사회단위로 공동체적 터전을 일구게 되었다.



[그림 2-5] 올레

군락을 형성하되, 개인권의 확보를 위해 가옥 외각에 돌담을 구성하여 군락들이 구부러지는 올래6)(골목)로 연결된다. 올래로 사생활을 보호받음으로서, 대문 역할을 대신하는 정낭7)으로 지역민 특유의 소통을 이룬다.

이는 또한 사람이 진행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관을 보여주는 시공간기법을 취한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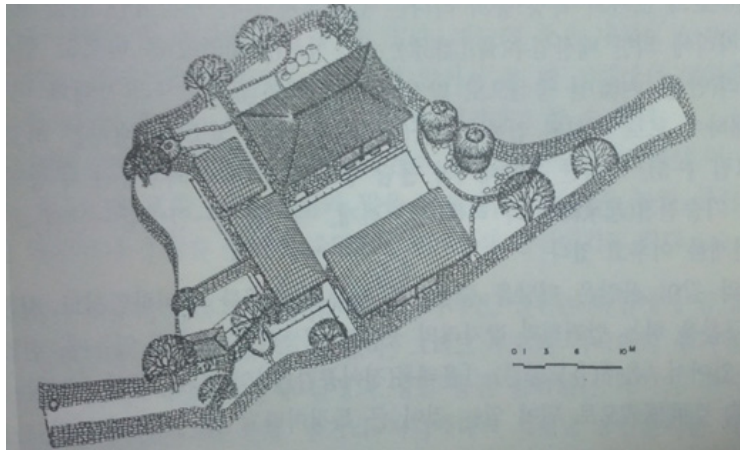
6) 올래, 골목 또는 골목길의 제주도 사투리로 큰 길에서 집까지 이르는 현무암로 이루어져 있다.

7) 정낭, 제주도 전통가옥에서 대문 역할을 대신하여 큰 돌이나 나무사이에 걸쳐 놓은 기둥을 말한다.

8) 양택훈, <제주도 주거건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8, p.9

2.2.2 가족제도

일반적인 한국의 전통가족제도와는 구별이 되어 장남이 결혼 후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태가 아닌, 분가를 하거나 같은 울타리 안에서 ‘안거리’⁹⁾와 ‘밖거리’¹⁰⁾의 형태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한국 전통의 별채의 개념이 아니라 두 개의 건물의 평면이 유사하여 부속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제주초가 배치의 엑소노메트릭¹¹⁾



[그림 2-7] 제주초가 배치의 평면구성¹²⁾

9) 안거리, 안채의 제주도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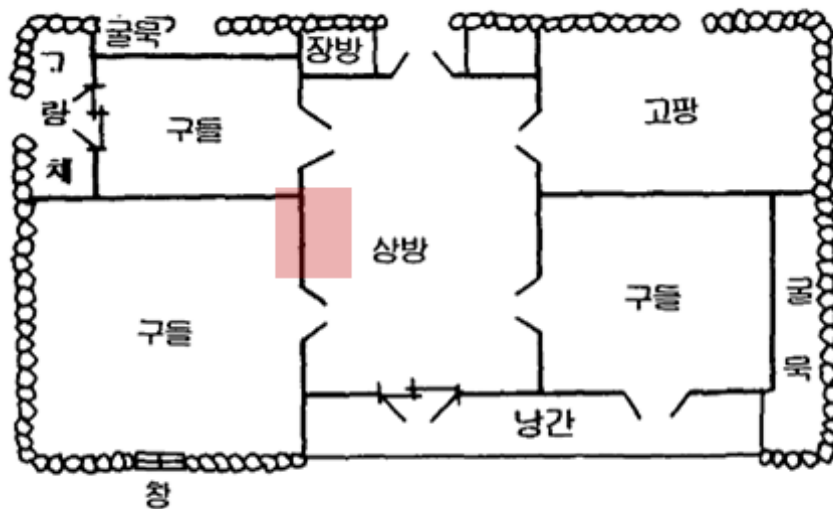
10) 밖거리, 바깥채의 제주도 방언으로 한 집 안에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집채

11) 제주도,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1987

2.2.3 민간신앙

민간신앙이란 민간의 생활공동체 안에 자생하여 전승되는 종교현상으로서, 제주도는 척박한 토양과 거친 바람, 다우의 기후조건에서 무속적인 생활태도를 지니게 된다. 각 공간과 관련한 신들은 올래는 올담지신, 정주목과 정낭은 정주목신, 상방(마루방)은 문전신, 정지(부엌)는 조왕신, 통시(변소)는 변소신, 고팡(광)은 안칠성, 안뒤는 밧칠성, 큰 구들은 삼승 할망 등이다.¹³⁾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으로서 가옥의 공간마다 각각의 신을 모신다. 일부 가옥에서는 상방(마루)신을 모시기 위한 공간을 천정과 보 사이에 따로 두기도 한다.



[그림 2-8] 구좌읍 송당리 김창기씨 가옥 평면도¹⁴⁾

12) 제주도,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1987

13) 임민희,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11,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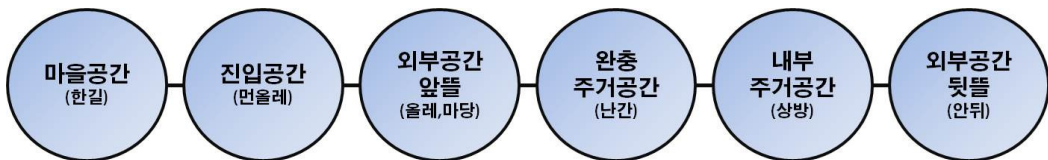
14) 김기덕, <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 경관 특성>, 건국대 석사논문, 1999, p.36 <참조 후 재편집>

2.3 주거형태

제주 전통가옥의 주거형태는 배치와 공간구성, 조형과 재료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배치의 경우에는 마을의 규모에서 공간 내부까지의 한국 전통 건축과는 구별되는 배치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 공간의 구성에서는 가족 중심의 공간배치를, 조형과 재료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한 재료와 그 구성이 만들어 내는 자연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3.1 주거의 배치형태

마을에서 주거의 내부까지의 연계를 순차적으로 나열해 보면, 마을공간, 집 입공간(올래), 외부공간, 난간, 상방(마루), 안뒤(뒤뜰)과 같다.



[그림 2-9] 마을에서 주거공간의 연계성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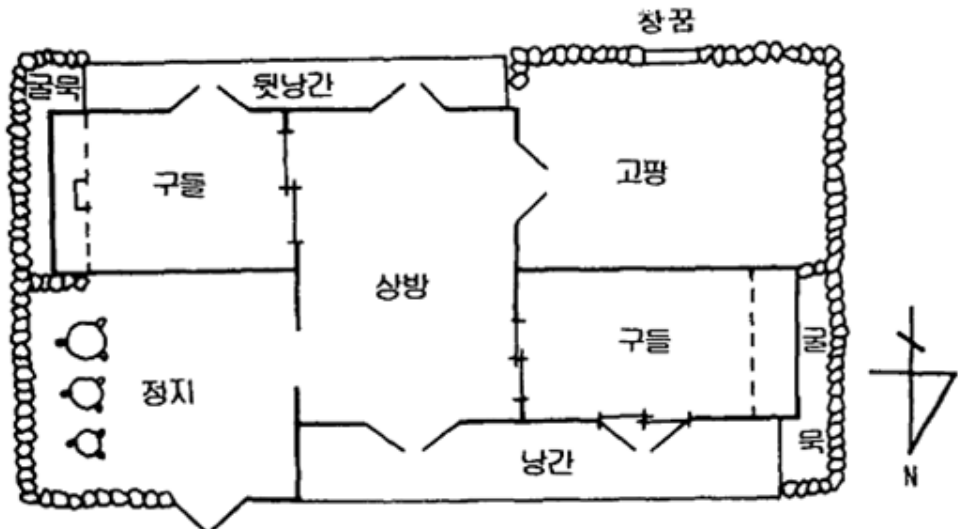
외부와 내부의 반복과 앞선 풍습의 분류에서 언급했던 올래의 기능이 개인권의 확보 뿐 아니라 난간과 함께 공간의 위계를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개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개방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통의 것과 구별되는 동시에 고차원적인 수법으로 평가된다.

15) 임민희,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11, p.18 <참조 후 재편집>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별동의 형식도 한국 전통 건축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설명한 가족제도와 바람과 생활양식에 기인한 것이다. 분동으로 배치하고 8m거리의 마당을 두는 것은 통풍의 역할로 농어물의 건조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3.2 공간구성형태

공간의 구성의 상방(마루)를 중앙에 넓게 배치하여 개인보다 가족중심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정지(부엌)는 조리기능 외에도 우천 시 작업공간과 빨감을 저장할 수 있도록 비교적 크게 공간이 구성 되어있고, 이 안에는 한국 전통 건축과 구별되며, 몽돌에서 전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섭(돌화로)’이 설비되어 있다.



[그림 2-10] 애월읍 애월리 김지봉씨 가옥 평면도¹⁶⁾

16) 김기덕, <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 경관 특성>, 건국대 석사논문, 1999, p.31

2.3.3 조형과 재료형태

제주 전통 가옥의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을 갖는 것은 지붕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초재지붕’이라 하여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잔디, 새, 억새, 갈대 등의 초근식물로 만들어진 ‘누름줄’로 고정된 것으로 오름과 유사한 형상을 한다. 망목의 크기는 25cm x 25cm 내외이고, 새 줄의 굵기는 3cm~4cm이나 본도의 동부보다 서부에서 더 굵게 나타난다.¹⁷⁾

돌담의 재료는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이용한다. 구의 외각에 개구부를 제외하고 제주에 많은 현무암으로 외벽을 둘러쌓았는데, 이는 목골 구조체를 강풍과 폭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¹⁸⁾



[그림 2-11] 정남과 제주 초가



[그림 2-12] 육지부 초가

17)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p.44

18) 임민희,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11, p.20

제 3 장 제주지역 내 동시대 건축사례

3.1 포도호텔에서의 지역성 분석

3.2 지니어스 로사이에서의 지역성 분석



제 3 장 제주지역 내 동시대 건축사례

3.1 포도호텔에서의 지역성 적용 분석

3.1.1 이타미 준

이타미 준(1937-2011)은 재일교포 건축가로써, 한국인이지만 도쿄에서 출생, 학업도 일본에서 진행하였다.



재료와 색을 다루는 독특한 감각이 특징이며, 일본적, 한국적인 것에 한정짓지 않고, 보다 넓고 더욱 근원적인 것인 자연이 자신의 건축 임을 밝혔다.

“대지에서 얻어지는 돌, 흙, 나무, 철, 토착적인 재료를 살리고, 가공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지역에 대한 텍스처를 살리며 색과 빛을 기초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의 미학이다.”¹⁹⁾

. 이는 제주의 풍토건축의 조형과 재료의 형태 부분에서 언급했던 제주 건축의 철학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다.

이타미 준에게 있어 드로잉은 건축의 밑그림이며,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건축의 한 단면이며, 삶에 보내는 언어로서 계속 이어지며, 사고의 답답함과 호흡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삶은 전모가 기입되는 과정이고, 공

19)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pp.30-31

간을 향한 기록이 된다.²⁰⁾ 보통 건축가의 스케치라면 건물의 형태를 중심으로 스케치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타미 준은 건물보다 자연이, 형태보다 풍경이, 찰라보다는 시간의 여백이 더 많이 담겨있다.²¹⁾ 이는 포도호텔의 드로잉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림 3-2] 포도호텔 드로잉²²⁾

20) 이타미 준, 《돌과 바람의 소리》, 김난주 옮김, 학고재, 2004, pp. 53-80

21) 김수일, <이타미 준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빛의 표현방법과 특성>, 건국대 석사논문 2013, p.30

22) 위 논문과 같음.

[표 3-1] 이타미 준의 년도 순 주요작품²³⁾

연도	작 품 명	지역
1970	교토 스톡 포인트	
1971	토포 하우스 시미즈의 집	
1973	가루이자와의 집 메타피지컬 포인트 월 톤 오픈 아시아의 집	
1975	여백의 집 I 먹의 집 Y 빌라 프로젝트	
1980	버밀리온 칼라 하우스 메이케쥬 칸 빌딩	
1981	여백의 집 II	
1982	온양 미술관	한국
1984	T.T 빌딩 프로젝트 고베 집 프로젝트 Y 하우스 프로젝트	
1985	조각가의 스튜디오	
1986	더 키타 여백의 집 III 장욱진 기념관	한국
1988	각인의 탑	한국
1990	만지사	
1991	석채의 교회	
1992	Block Other Block West Block East M 빌딩	
1993	고리야마 하우스 피라미드	
1996	나무의 교회	
1998	먹의 압 핀크스 퍼블릭 골프 클럽 하우스 핀크스 멤버스 골프 클럽 하우스	한국 한국
2000	Guest House Old New	
2001	흙의 교회 포도 게스트 호텔	한국
2002	순천고등학교 인사동	한국 한국
2003	인사동 학교재 미술관 평창동 Atelier	한국 한국
2004	SK 기흥 APELBAUM 콘도미니엄 광주요 GUEST HOUSE Kim's Villa	한국 한국 한국
2005	PINX BIOTOPIA TOWN HOUSE	한국
2006	DUSON MUSEUM THREE MUSEUM WATER WIND STONE	한국 한국

23)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p.34 <참조 후 재편집>



3.1.2 포도호텔의 개요

‘포도호텔’은 1998년에 지어진 제주도 핀크스 골프장 내에 지어진 호텔이다. 1,050㎡의 건축면적을 지닌 이 호텔의 지붕은 티타늄으로 마감되어 포도 알이 뭉쳐진 형상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제주 전통 건축의 ‘초재지붕’과 오름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1999년 7월. 그가 건축주에게 마스터플랜과 함께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개념으로서의 단어들- 틀어박히다, 숨다, 해방, 열다, 닫다, 혼재한다. 이것들을 이미지화하면서, 저로서는 먼저 지형과의 조화, 지형에 거슬리지 않는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높이 차이도 많이 이용하였고, 마을의 본질, 민가의 *motive*를 부상시키면서 자연발생적인 것을 축으로 두었습니다.’²⁴⁾

이에 ‘토착성’과 ‘지역성’을 건물의 형상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공간의 흐름을 차용하여 자연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는데, 긴 복도를 따라 홀 중앙으로 갔을 때, 하늘로 열려 있는 빗줄기와 같은 구성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3] 포도호텔 내부전경²⁵⁾

24) 이창호 외, 《빛과 들》, 초판, 핀크스 골프 클럽, 제주, 1999, p 61

먼저 조닝(zoning)은 복도와 복도 주변의 객실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복도는 자연발생적인 식재 포도의 가지처럼 중간 중간 꺾여 있는 형태이다. 진입부에서 집입하여 프론트(front)와 레스토랑(restaurant)을 지나 복도를 따라 들어서면, 좌우로 객실이 있다.²⁶⁾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두 기둥에는 돌, 철판, 나무의 세 재료가 모두 사용되어, 이런 기둥하나에도 ‘소재의 미’를 표현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²⁷⁾



[그림 3-4] 케스케이드

장방형의 객실들은 자연의 형태를 따라 자연스럽게 그 중심축이 틀어져서 객실 간에는 작은 틈들이 생기곤 한다. 그 틈들은 외부로 연결되는 길이 되기도하고, 막혀 있지만, 외부의 빛과 조방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복도는 지형을 따라 경사가 있는 곳에 폭이 깊은 계단이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마치 마을의 길을 걷다보면, 완만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도 나오고, 단이 진 곳도 나오는 것과 같다. 복도의 중앙에는 역사가 식재되어 원통형의 ‘케스케이드(cascade)’가 있어서 먹색 마감의 실내로 빛이 유입되도록 한다. 천장의 모양은 원형이며, 복도를 따라 더 깊이 들어서면 중정이 있다. 중정을 둘러싸고 객실들이 배치된다.²⁸⁾

25)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p.51

26) 신민철, <이타미 준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6, p.34

27)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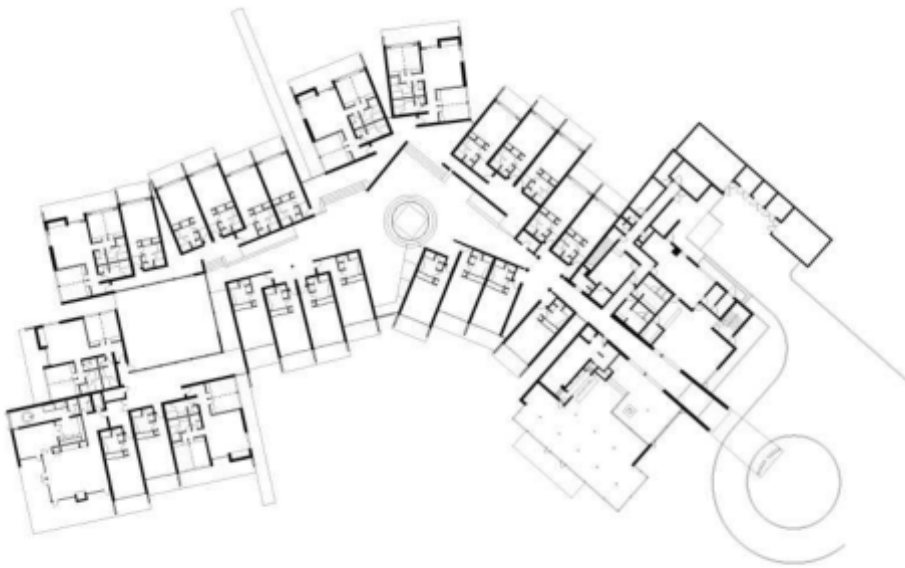
28) 신민철, <이타미 준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6, p.35

3.1.3 적용 요소와 활용 특징 분석

(1) 배치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포도호텔의 평면도를 확인해 보면, 제주 전통가옥의 돌담 울타리 안에 마당이 중심이 되어 두거리와 세거리를 이루는 자유로운 배치와 유사하게 중정을 중심으로 별동을 배치하였다.

그 공간의 흐름도 역시 올래(도입부)- 올래목(전곡부)- 마당(발전부)- 안뒤(종결부)의 리듬으로 제주도 민가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지니게 했다. 건물의 배치에서 제주 전통민가의 문맥을 흐르게 함으로써 다음단계의 기타 지역성의 적용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²⁹⁾



[그림 3-5] 포도호텔 배치도³⁰⁾

29)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p.80

30) 신민철, <이타미 준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6, p.33

(2) 조형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호텔의 지붕은 전통민가의 지붕형태와 유사하다. 공법상 간격도 전통가옥의 새줄 간격과 비슷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제주의 오름과도 유사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단지 재료를 포도호텔에서는 티타늄아연판을 사용하였고, 제주 전통가옥의 지붕은 새, 억새, 갈대 등의 초근식물을 이용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3-6] 포도호텔의 지붕과 제주전통가옥의 초재지붕

(3) 공간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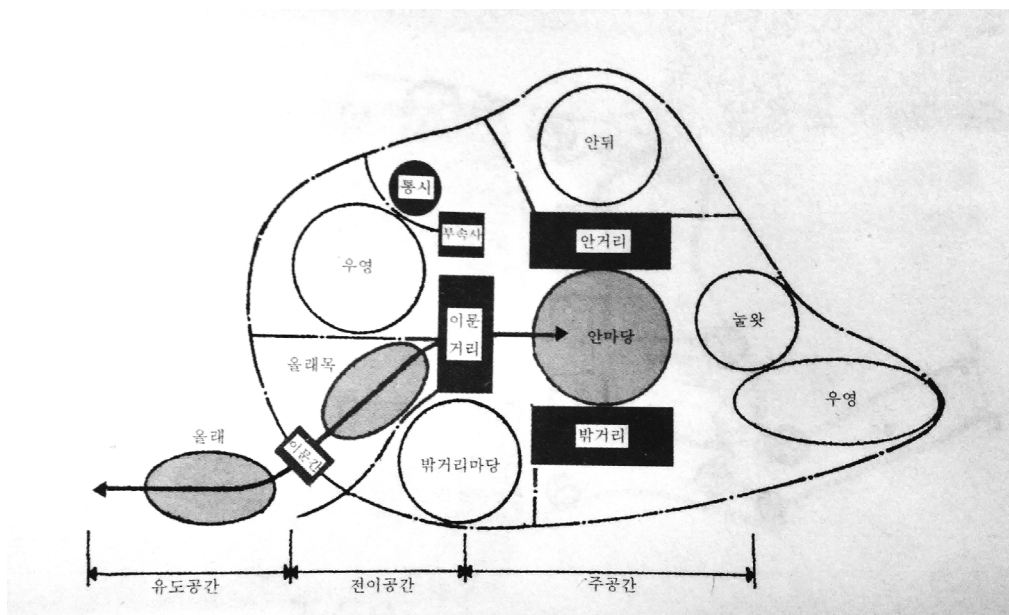
공간적 요소에서는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내부공간에서는 올래의 공간구성과 유사한 틈 공간을 형성하여 명상의 기능을 하였고, 호텔 중심 홀에 위치한 유리중정은 제주가옥의 안마당과 유사하다. 올래의 공간구성과 유사한 공간은 입구에서 보는 길고 좁은 복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작가는 또 폐쇄적인 공간에서 열린감을 부여하기 위해 거실평면을 배치할 때, 각 블록사이에 대외로의 열린 틈의 공간을 주었다. 이 좁은 공간은 수평적으로 외부의 경치를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며 대외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틈으로는 강한 제주도 대자연의 경치가 쏟아져 들어오며 틈사이에 놓여진 돌과 강한 대비를 연출한다. 이틈은 자연만을 위한 올래라고 볼 수

있다. 올래의 입구를 어귀라 부르는데 그 양쪽에는 어귀돌이 놓이고 그 앞에는 말을 탈 때 디딤돌로 사용하는 물광돌이 놓인다. 이들은 주택의 입구의 시작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틈 사이에 놓여 있는 돌은 마치 올래의 물광이돌과도 같이 자연과 대화를 하며 뭔가를 암시 하는 듯하다. 작가는 올래의 개념을 적용하여 또 하나의 명상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³¹⁾

실내 홀의 캐스케이드는 제주의 안마당과 유사하다. 그림 3-7를 확인해보면 배치를 통한 공간의 집입방법이 유사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원형의 천장으로 빛을 유입하여 실질적으로 외부공간인 안마당과 관계를 맺는다.

외부공간에는 안뒤(안뒤곶)와 우영(뒷밭)과 같은 전통가옥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그림 3-7] 제주전통 건축공간의 진입방법³²⁾

31)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pp.81-82

32) 김태일, 《제주건축의 맥》, 초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 2005, p.14

우영은 민가에서 돌담 안에 건물을 배치한 뒤에 여분의 터를 채소밭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영에는 제주도 주민의 삶이 스며있으며, 봄에는 유채와 보리가 자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 건물과 제주의 삶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상을 읽을 수 있다.³³⁾



[그림 3-8] 제주전통가옥의 우영과 포토호텔의 ‘우영’ 적용

33)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토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p.83

(4) 재료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포도호텔의 지역재료 사용을 확인해 보면, 지역의 석재인 현무암과 억새와 같은 식재의 호텔의 로비를 지역의 석재로 마감하였고, 실외의 조경에는 현무암을 이용한 돌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실내정원에 억새를 식재하였다.



[그림 3-9] 제주억새

(5) 종합적인 지역성 적용 분석

포도호텔에서 보여지는 현대적 적용방식을 분석하고자 배치와 조형, 공간 재료에 따라 전통가옥의 요소들을 정리 해보았다.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에서는 건물의 조형과 재료의 직접적인 사용을 통해 제주전통가옥의 재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공간의 배치와 구성에서는 전통가옥의 관계성을 통해 적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림 3-10] 포도호텔

[표 3-2] 포도호텔의 지역성 적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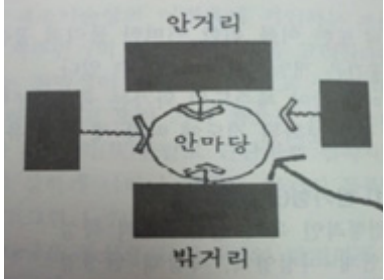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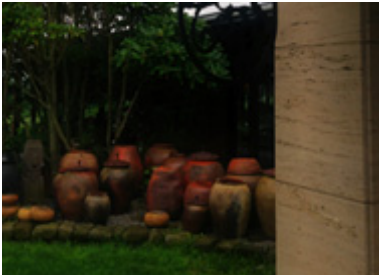
포도호텔

PODOHOTEL

1998

- 제주도 핀크스 골프장 내 호텔
- 건축면적 : 1,050m²
- 포도 알이 뭉쳐진 형상을 한 호텔의 지붕은 티타늄소재

	포도호텔	
	이미지	제주의 전통가옥
배 치		
	전통가옥의 돌담 울타리 안에 마당이 중심이 되어 두거리와 세거리를 이루는 자유로운 배치와 유사하게 중정을 중심으로 별동을 배치하였다	
조 형		
	호텔의 지붕은 전통민가의 지붕형태와 유사, 공법상 간격도 전통가옥의 새줄 간격과 비슷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제주의 오름과도 유사하다	

	포도호텔	
	이미지	제주의 전통가옥
공 간		
		
		
	올래의 공간구성과 유사한 틈 공간을 형성하여 명상의 기능을 하였고, 호텔 중심 홀에 위치한 유리중정은 제주가옥의 안마당과 유사하다 외부공간에는 안뒤(안뒤곶)와 우영(텃밭)과 같은 전통가옥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포도호텔	
	이미지	제주의 전통가옥
재 료		
호텔의 로비를 지역의 석재로 마감하였고, 실외의 조경에는 현무암을 이용한 돌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실내정원에 억새를 식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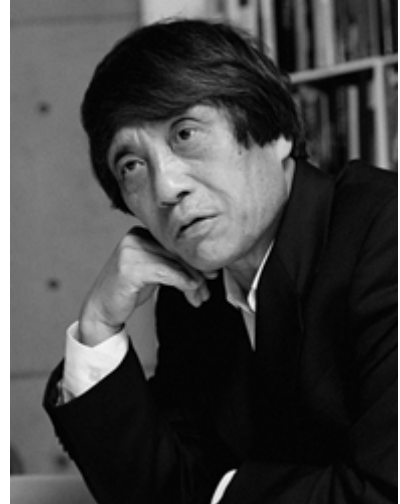
3.2 지니어스 로사이에서의 지역성 적용 분석

3.2.1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1941-)은 일본의 건축가로서, 유리
와 노출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한다. 간결하
고 단순하면서도 빛과 어둠, 물의 조화로 자연
과 가까운 건축을 선보인다.

다음 글을 통해, 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자리로서의 땅은 자연이 지닌 고
유의 논리로 판단되고 건축 또한 고유의 논리



[그림 3-11] 안도 다다오

를 지니고 있다고 나에게는 느껴진다. 건축대지는 늘 인간에게 끊임없이 부르
짖고 있다.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건축을 바라는 그 부르짖음은 그것을 들으
려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만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지의 요구에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가 바로 건축이라는 행위일 것이다.’³⁴⁾

안도는 장소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모더니즘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
았던 지역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안도건축은 보편성을 향하여 잉태되
었던 모더니즘의 어휘와 기법을 지역의 개별성 속에 가둬놓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지역의 개별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안도의 건축적 사고는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감성을 계승하고자 하는데 있고, 눈에 보이는

34) 임채진, 《건축의 누드작가》, 초판, 살림, 2004, p.32



구체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단순화와 추상화에 있다.³⁵⁾

안도 자신은 지역주의 건축을 지역이나 장소에 뿌리를 둔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같은 것을 구체화하는 건축, 즉 일본의 건축이 지형을 이해하고 자연을 의식하면서 인공의 것과 자연의 것이 융합하여 이루어지는 건축으로 이해하였다.³⁶⁾

이는 일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내에서의 안도의 건축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대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음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12] 지니어스 로사이

35) 이보연, <안도 다다오의 주거관에 기초한 주거건축공간의 디자인 특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12, p.10

36) 안도 다다오, 《안도다다오 건축을 말한다》, 도서출판국제, 2000, p.308

3.2.2 지니어스 로사이의 개요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을 지닌 지니어스 로사이는 섬지코지에 위치한 ‘휘닉스 아일랜드 리조트’ 내에 있는 명상공간이다.

휘닉스 아일랜드가 내세우는 섬지코지의 계획은 ‘이곳은 기능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예술을 담기 위한 그릇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섬지코지 전체의 건축적 현황을 살펴보면, 안도 다다오의 또 다른 작품인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그리고 벨라 테라스, 힐하우스, 아고라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과 문화라는 공통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축과 섬, 그리고 예술과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예술 공간으로서 섬의 특수성과 함께 예술체험공간으로 계획되었다.³⁷⁾

지니어스 로사이 건물의 주재료는 그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출 콘크리트로 형성된다. 직선의 벽을 이용하여 안과 밖의 공간을 경계 짓는다.

건물 간 이동 경로는 ‘돌의 정원’으로 연결되어 다음 공간의 위계와 이전 경로와 공간 구성의 리듬을 형성한다. 돌의 정원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석재인 현무암으로 구성된 정원으로서 돌을 자유롭게 쌓아 올린 돌담 중간에 억새를 식재하였다.



[그림 3-13] 돌의 정원과 명상실

명상실 입구의 담장은 바깥의 콘크리트 담장과 다른 현무암으로 구성된다. 입구에 들어서면, 양쪽 비스듬한 사선의 벽면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수공간을 형성한다. 지하에 위치한 명상실은 높은 벽으로 구성된 이동 경로를 따르며, 경로 중간 벽에 프레임을 구성한다.

37) 김지은, <맥락주의로 본 안도의 지니어스 로사이, 부산대 석사 논문>, 2013, p.60

3.2.3 적용 요소와 활용 특징 분석

(1) 배치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건물을 연결 짓는 ‘돌의 정원’은 전통가옥의 마을에서 주거의 내부까지의 연계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 휘닉스 아일랜드의 입구에서 행복의 문, 초원산책로를 거쳐, 지니어스 로사이 입구로의 경로는 지니어스 로사이 내 건물 간 이동 경로에 ‘돌의 정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음 공간의 위계와 공간 구성의 리듬을 형성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주거의 배치형태의 언어와 동일하다. 지니어스 로사이 실내에서도 지하의 명상실로 진입하는 경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이 올라에서 가옥으로 내려가는 방향성과 유사하다. 경로 중간에 의도적인 풍경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은 장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3-14] 돌의 정원

(2) 조형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내 외부 공간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는 공간 벽들은 돌담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다. 이 장형의 벽은 원경으로 보았을 때, 해안절벽인 섭지코지로 부터 주변 수평선과 지평선과 위배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즉 대지에 순응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안도의 사상에서 언급 된 지형을 이해하고, 자연과 융합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가옥의 요소들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는데, 입구에 따로 대문을 두지 않고 정낭을 배치하기도 한다.



[그림 3-15] 지니어스 로사이의 정낭

(3) 공간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돌의 정원에서는 가옥과 가옥을 연결 짓는 울래와 유사한 구성으로 명상의 기능을 하고, 경로 중간에 의도적인 풍경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은 장면을 맞이하는 울래와 유사한 경관 유도방식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4) 재료에 대한 지역성 적용 분석

지니어스 로사이의 지역재료 사용을 확인해 보면, 노출 콘크리트와 지역의 석재인 현무암의 사용으로 건축가의 특색과 지역성을 융화, 외부조경에 현무암 형태 그대로를 오브제 형식으로 배치하였다.



[그림 3-16] 명상실 입구

(5) 종합적인 지역성 적용 분석

지니어스 로사이에서 보여지는 현대적 적용방식을 분석하고자 배치와 조형, 공간 재료에 따라 전통가옥의 요소들을 정리 해보았다. 안도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은유적인 공간의 모방이 나타났다. 공간의 배치 방식은 전통공간의 마을과 올래, 주거공간까지의 구성과 유사했다. 공간 내에서는 수공간과 의도적인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올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요소를 공감각적으로 재현하였다. 안도 다다오의 경관유도방식은 단편적인 조형의 모방과 비교해서 작가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에서는 시각적인 형태 뿐 아니라 청각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7] 지니어스 로사이와 성산 일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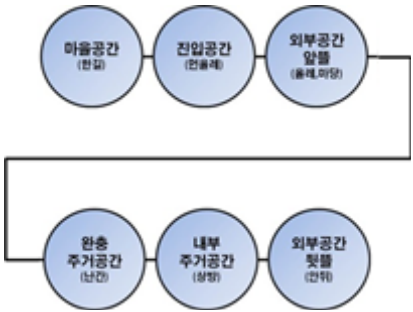
[표 3-3] 지니어스 로사이의 지역성 적용 분석

지니어스 로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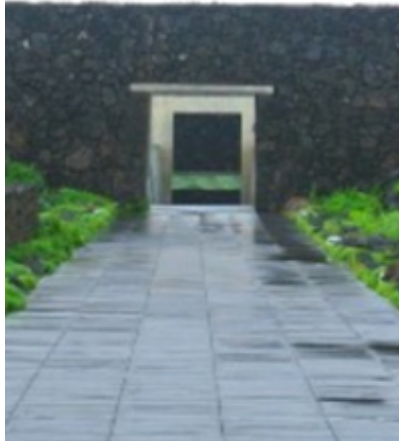
Genius Loci

2009

- 휘닉스 아일랜드 리조트 내에 있는 명상센터
- 건축면적 : 1,355.66㎡
-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 지하층에는 3개의 명상공간,
지상층은 휴식라운지, 명상의 정원으로 구성
- 노출 콘크리트와 현무암이 주 재료

	지니어스 로사이	
	이미지	제주의 전통가옥
배 치		
	건물을 연결 짓는 ‘돌의 정원’은 전통가옥의 마을에서 주거의 내부까지의 연계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	

	지니어스 로사이	
	이미지	제주의 전통가옥
조 형		
		
	돌담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장형의 벽은 원경으로 보았을 때, 주변 환경의 수평선과 지평선과 위배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공 간		

	지니어스 로사이	
	이미지	제주의 전통가옥
공 간		
	돌의 정원에서는 가옥과 가옥을 연결 짓는 올래와 유사한 구성으로 명상의 기능을 하고, 경로 중간에 의도적인 풍경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은 장면을 맞이하는 올래와 유사한 경관 유도방식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재 료		
	노출 콘크리트와 지역의 석재인 현무암의 사용으로 건축가의 특색과 지역성을 융화, 외부조경에 현무암 형태 그대로를 배치하였다	

제 4 장 유희공간의 부티크 호텔 리노베이션 계획

4.1 프로젝트 개요

4.2 공간 계획의 전개

4.3 디자인 전개



제 4 장 유희공간의 부티크 호텔 리노베이션 계획

4.1 프로젝트 개요

4.1.1 계획의 배경 및 방향

건축에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고유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각 풍토만의 적합성과 명료성을 부여한다. 각 지방마다 지역만의 특이성을 담은 풍토건축을 갖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전통가옥은 화산섬이라는 환경조건과 사회문화적 특이성에 따른 가옥의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특이환경에 대한 대안과 부가가치의 제안으로써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폐 산업시설 또는 구 군사시설 등 방치 되어 있는 시설을 재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역사적, 장소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우선적인 계획대상으로 주목 되고 있으나, 본래의 기능을 잃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 공동화되거나 비활성화 돼 하드웨어만 남아있는 공간 등을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건축폐기물 감소와 낙후 이미지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연결된다.

또한 보존의 가치를 갖는 건축을 시공의 경우보다 자유로운 시도의 허용과 기존 건물이 목적하지 않던 공간구성을 통해 불완전함에서 오는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 내 유희공간을 대상으로 제주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자 한다. 지역의 환경과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공간의 구상을 통해 유희공간의 낙후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재생과 향후 제주 건축적 지역성을 반영하는 건축과 유희공간의 리노베이션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4.1.2 대지 선정 및 분석

제주시는 지난 2013년 8월 6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가 2014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전국공모사업에 선정됨을 밝힌 바 있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적 발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타 아이디어사업 공모에 참여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국가와 도의 지원으로 마을유희공간을 활용한 공간조성과 제주의 독특한 자원인 돌을 활용한 체험 민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4-1] 제주도 위성지도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서 고산남 8길 17-35에 위치한 폐 산업시설을 계획대상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의 재료와 사용과 더불어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숙박공간인 부티크호텔로서의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은 제주도민들의 주요산업분야이며, 관광지로서의 입지는 프로그램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

본 프로젝트의 대지는 고산남 8길 15-37번지 에 위치하여, 대지의 동쪽지역에는 도내 삼대 관광중심지 중 서부 관광중심지와 인접하며, 서쪽에는 암초로 이루어진 차귀도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당산봉과 수월봉이 고산리에 속한다.



[그림 4-2] 관광지로서의 입지

[표 4-1] 고산남 8길 15-37번지

지 목	공장용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9,750㎡
건축면적	2,307㎡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그림 4-3] 도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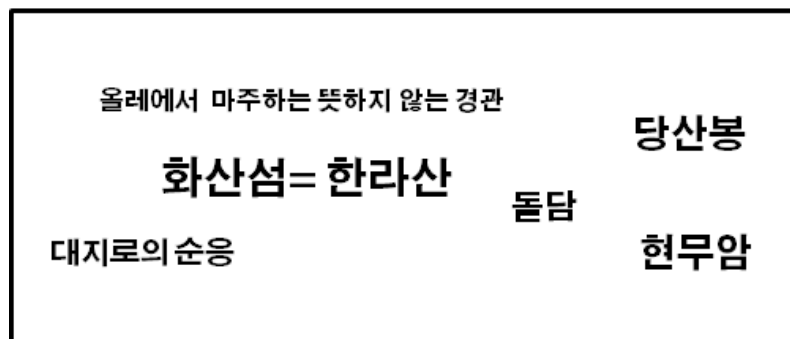
[그림 4-4] 현존상태

4.2 공간 계획의 전개

4.2.1 디자인 개념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화산섬으로서, 이러한 환경은 지리적 특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지역의 풍토는 지역 건축에 지역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간단한 예로 제주 전통 가옥의 초가는 강한 바람에 유연하기 위해 육지부의 지붕의 형태와는 다른 완만한 형태를 띤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제주 전통가옥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을 반영하고, 본래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림 4-5]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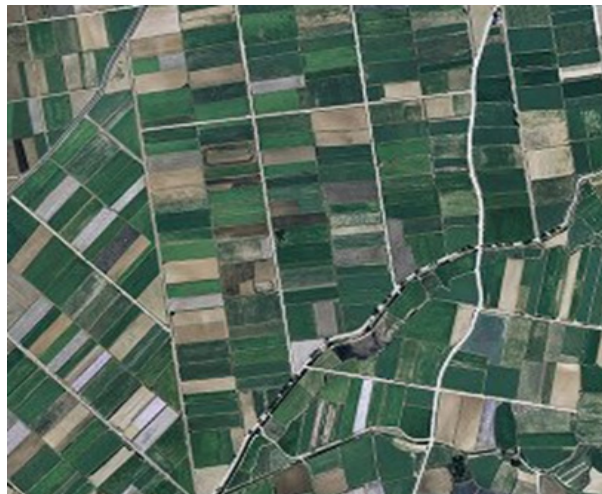
4.2.2 디자인 적용계획

앞서 연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요소와 특징을 적용한 부티크호텔을 계획하고자 한다.

제주 전통가옥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은 지역풍토에 기반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연의 범위는 필지가 위치한 마을단위로부터 시작한다. 마을의 지형으로부터 건물의 형태가 결정되고, 지역 내 오름의 형태를 단순화 하여 그 형태를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할 것이다.

(1) 외부 계획

건물의 형태가 지역의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증축을 계획한다. 고산리의 옛 명칭이 ‘고산드르’³⁸⁾였다는 마을명의 역사에서 지형적 특징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지에 가까운 형태로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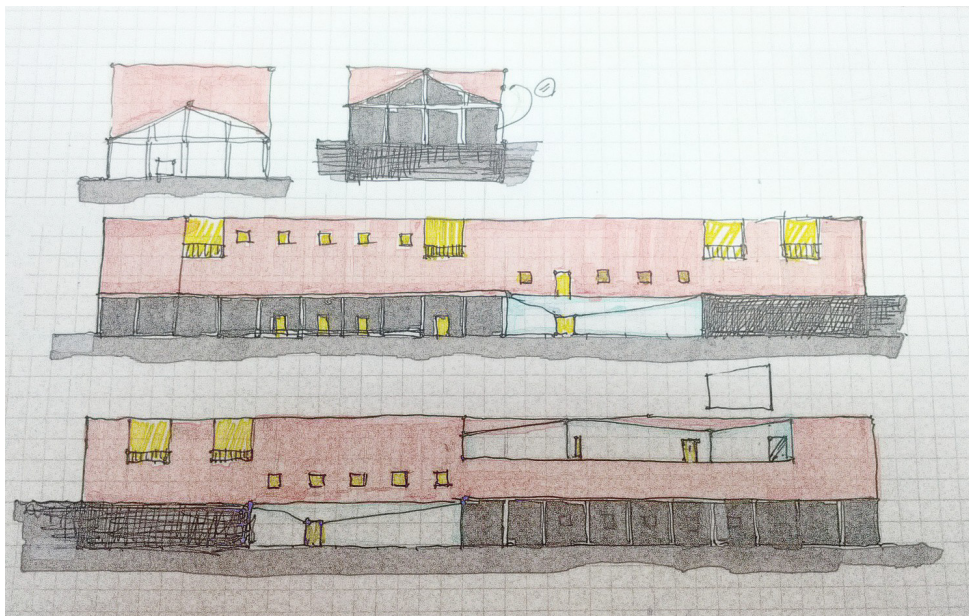


[그림 4-6] 고산드르

38) 고산드르 : ‘드르’라 함은 평야를 이르는 제주어로, 고산은 예부터 넓은 평야를 지니고 있어 ‘고산드르’라 하였다.

폐 산업시설이었던 기존 건물은 부티크호텔로 계획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증축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건물의 형태는 박공지붕을 갖춘 1층 건물이다. 높이는 8.2m, 폭은 21.6m 길이는 106.8m에 해당한다. 장형의 건물로서 이미 대지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나, 대지와 가까운 형태로 강화시키고자 박스형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그림 4-7] 외부계획 드로잉



[그림 4-8] 기존 건물의 입면



[그림 4-9] 계획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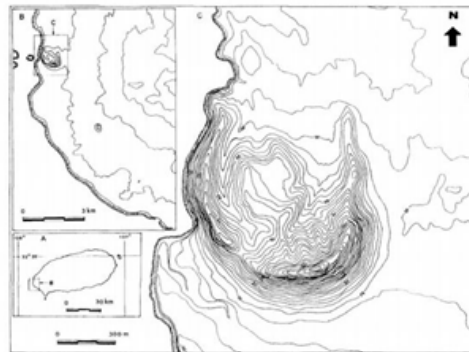
(2) 실내 계획

가) Courtyard : 지역의 오름, 즉 종화산인 당산봉을 형태적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화산섬인 제주에는 300여개의 종화산이 넓게 분포해 있다. 각 마을마다 그 마을을 대표하는 종화산(오름)이 있는데, 고산의 그 것이 당산봉이다. 마을을 대표하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오름은 다양한 이야기와 시간을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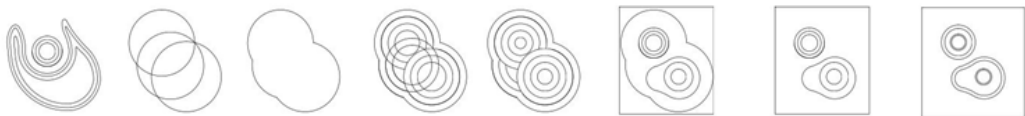
한라산이 품고 제주가 품는 오름을 등고선 형태의 단순화를 통해 이 건축물의 안뜰에서 구성한다.



[그림 4-10] 당산봉과 Site위치



[그림 4-11] 당산봉 등고선 지도³⁹⁾



[그림 4-12] 등고선의 단순화

39) 황상구, <제주도 당산봉 화산의 형태적 분류>, 지질학회지 제37권 제 1호, 2001, p.72

나) Reception : 제주전통가옥에서 올래는 대문의 역할을 대신하여 사적인 개인권을 확보한다. 또한 주변 경관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여 더 풍부한 공간으로 연출 할 수 있다.

이에 올래의 좁고 긴 경로와 유사한 공간을 리셉션에 위치한 3층 계단으로 표현하였다. 벽을 타고 올라가며 점차 부풀어 오르는 보이드를 경험하고, 벽에 전시물을 설치하여 거리감에 차이에 따른 감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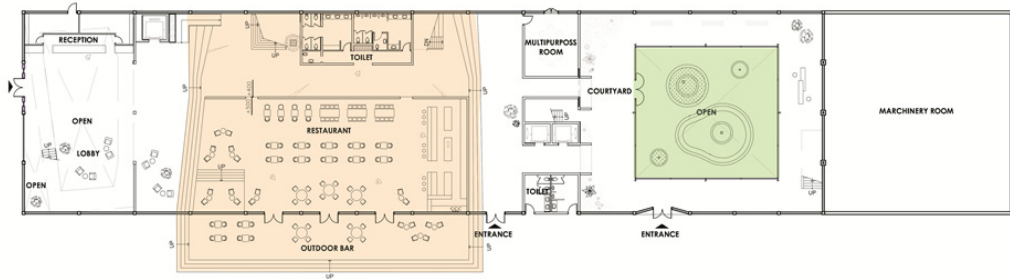
[그림 4-13] Courtyard 모형

다) Lobby & Cafe :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당산봉과 수월봉이 고산리에 속한다. 이 사층리에 담긴 시간의 축적과 형태를 대공간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화산재가 켜켜이 쌓인 사층리 구조는, 카페와 로비가 들어가는 공간에 단차를 주어 계획하였다. 이는 외부 테라스의 공간과 연결된다. 카페 공간의 천정은 과거 박공지붕의 트러스철골 구조를 따르고, 수월봉의 해안절벽의 단면에 모티브를 얻어 공간을 절단면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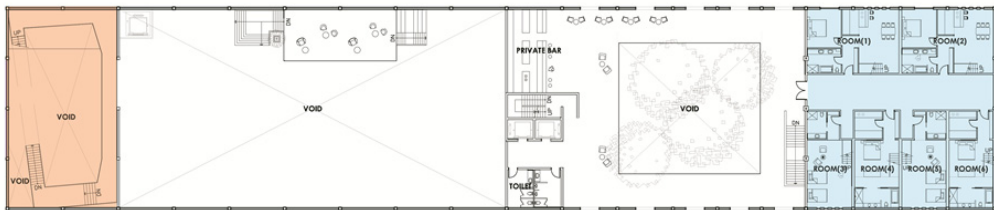
4.2.3 공간 프로그램

(1) 1층 : Reception, Lobby, Cafe & Restaurant, Court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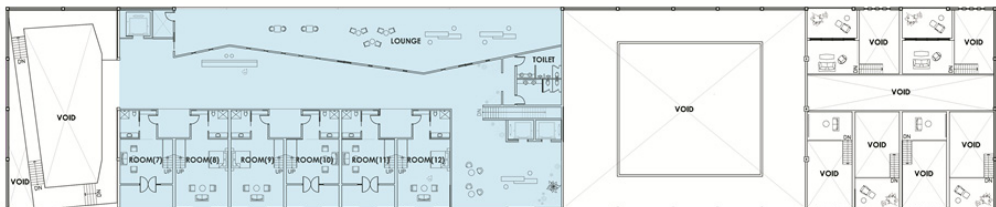
[그림 4-14] 1층 공간 프로그램

(2) 2층 : Private Bar, Room.



[그림 4-15] 2층 공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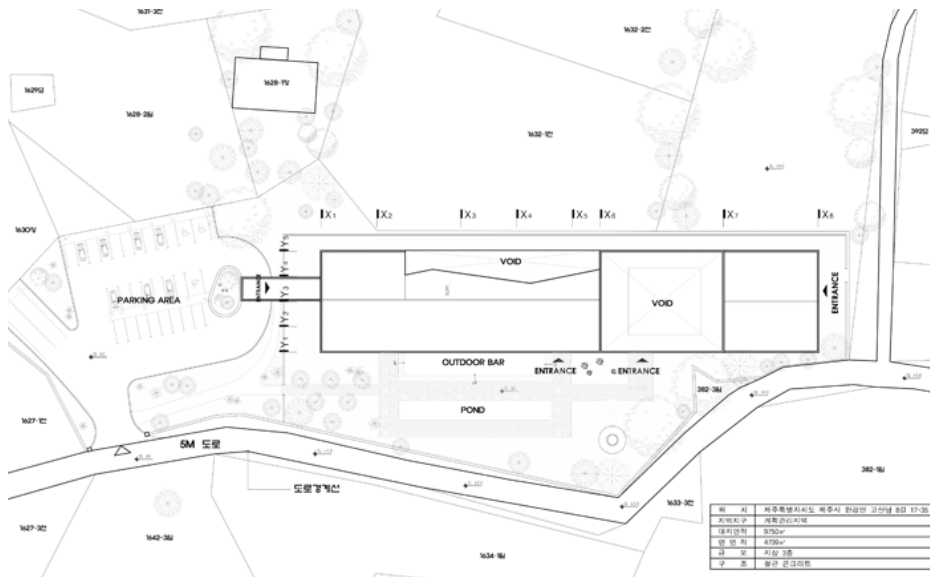
(3) 3층 : Room, Lounge.



[그림 4-16] 3층 공간 프로그램

4.3 디자인 전개

4.3.1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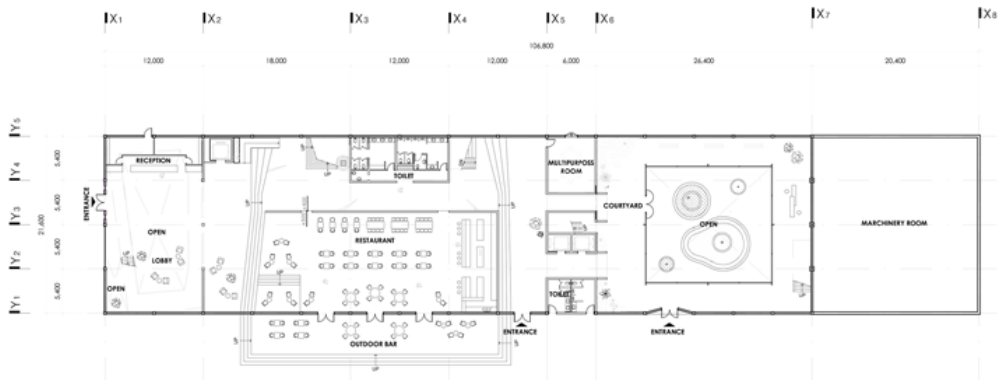
[그림 4-17] 배치도

본 프로젝트의 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면 고산리 고산남 8길 15-37번 지에 위치하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대상지의 주변은 임야와 농지로 조성되어있다. 본 대상지의 북쪽에는 중로 3류와 인접하고, 남쪽의 소로2류의 5m 차도로 접근할 수 있다. 주차공간은 대형버스차량 2대와 장애인용 포함 2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일반차량 주차공간을 마련하였다.

돌담으로 조경공간을 구획하였고, 수공간과 외부 바가 함께 배치된다. 기존 건물과 함께 있던 굴뚝은 형태는 그대로 두고, 통로를 마련하여 뚫린 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2 평면도

(1) 1층



[그림 4-18] 1층 평면도

출입구는 총 3개가 있다. 메인 출입구로 진입하면, 층고 12.3m의 로비 공간으로 들어선다. 벽 둘레를 따라 설치된 계단은 3층의 객실과 연결된다. 북측의 리셉션은 박스 내에 구성된다.

동쪽 방향으로 진행하면 층고 8.2m인 대공간에 들어선다. 이 공간엔 카페와 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화장실과 카페는 각각 다른 형태의 천정으로 구성되며, 화장실 mass위로 계단을 설치하여 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동쪽으로 더 깊숙이 진입하면, 다용도실과 외부화장실,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그 다음은 상부가 뚫려 있는 아트리움에 진입하게 된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복도공간에 벤치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뜰의 조경 형태는 당산봉의 등고선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배치는 제주전통가옥의 안마당과 관계하여 구성한 것이다.

(2)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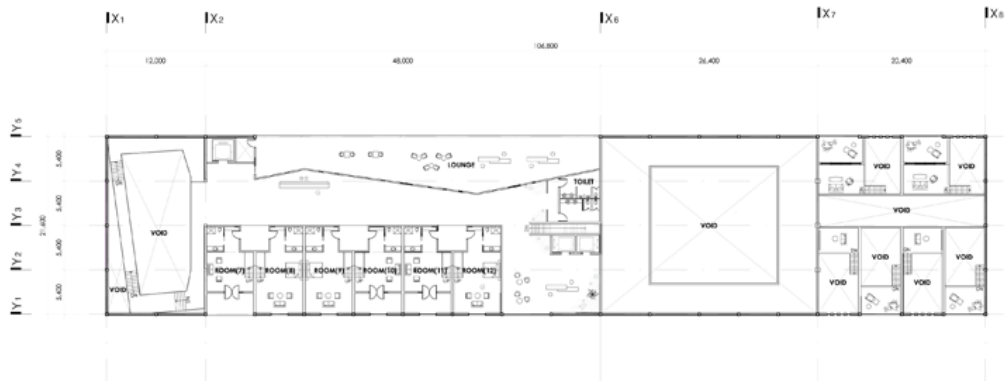
[그림 4-19] 2층 평면도

2층의 대공간은 화장실 위에 계단을 따라 구성된 로비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2층의 주요 공간은 동쪽의 객실과 객실고객을 위한 전용 바가 있다. 전용 바가 위치한 공간은 8.7m 높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정을 뚫려 있다. 아래 층에 식재 된 조경과 함께하며, 벽에 뚫린 창 의 사이즈는 사진작가, 김영갑의 1 : 3 비율을 따라 구성하였다.

2층으로의 접근은 건물 중심부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실과 안뜰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동쪽의 객실은 전부 복층의 구조이며 2층 규모의 거실은 제주 돌담의 틈 공간에서 착안하여 디자인 된 창을 설치하였다.

(2)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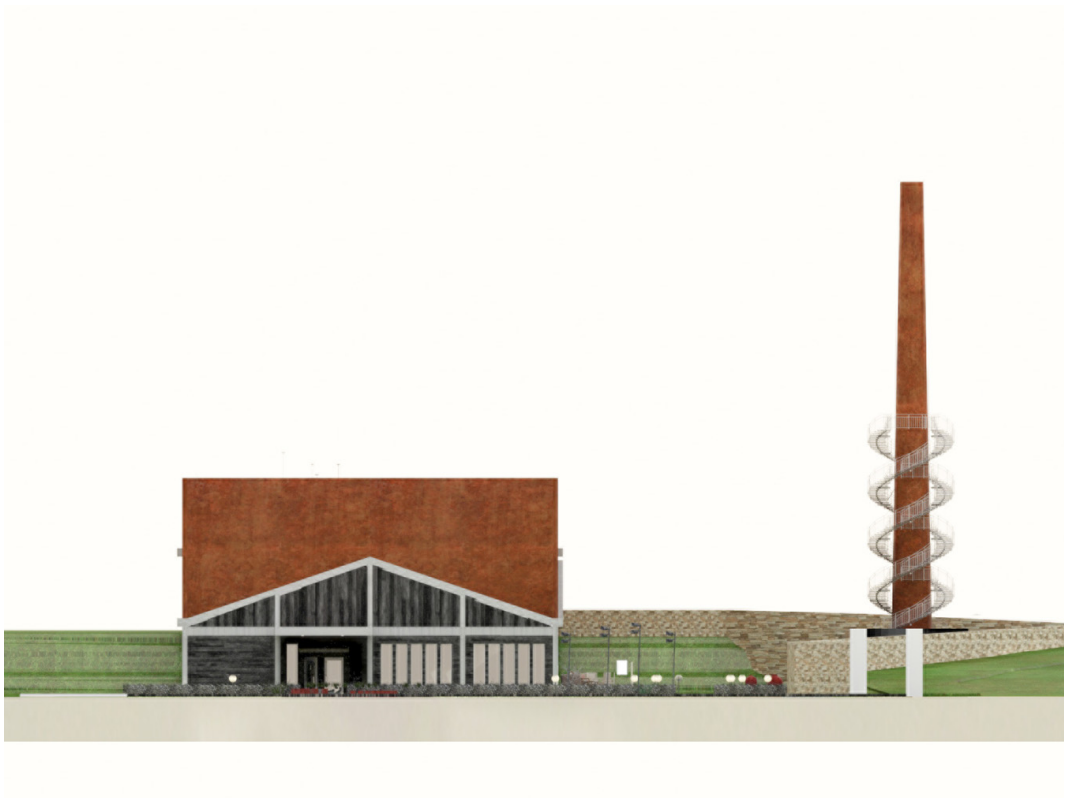


[그림 4-20] 3층 평면도

3층의 주요공간은 서쪽의 객실이 되겠다. 2층의 객실이 전용 바가 갖춰졌듯이 서쪽의 객실에서는 전용 야외 라운지가 설치되어있다. 복층 구조의 동쪽 객실의 상부층이 3층도면에 나타나며, 동쪽객실과 서쪽객실의 중간에는 안뜰을 두는데, 이는 제주전통가옥에서 안거리와 뒷거리를 갖춘 가옥 배치에 착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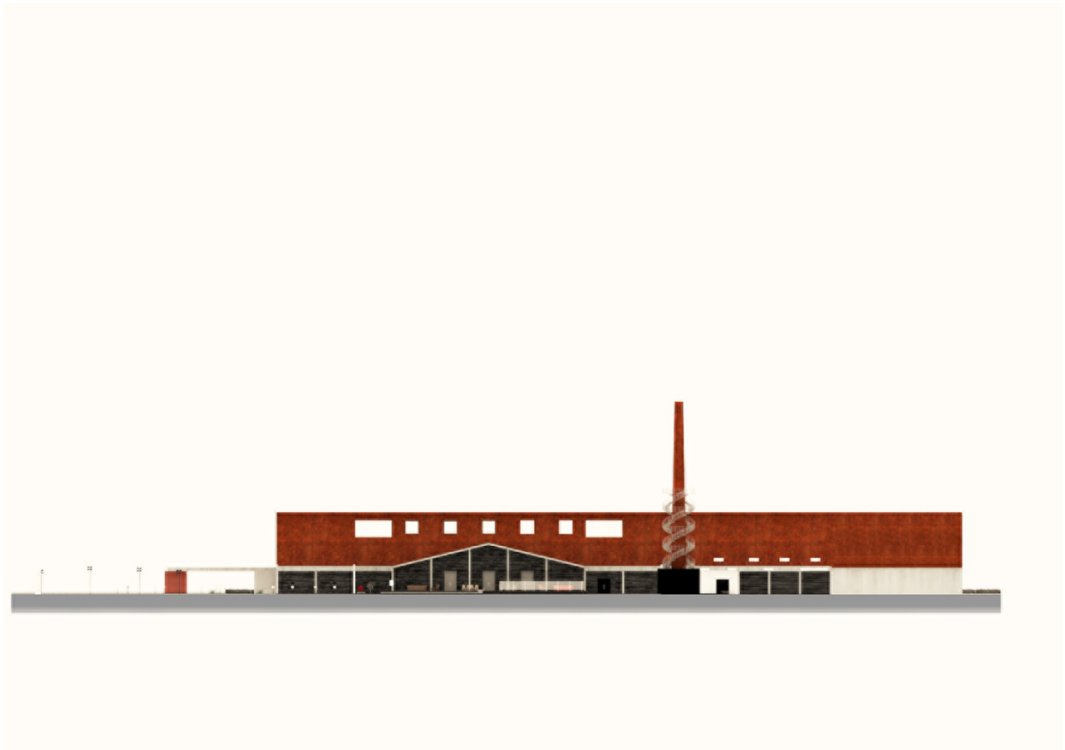
4.3.3 입면도

(1) West Exterior Elevation



[그림 4-21] West Exterior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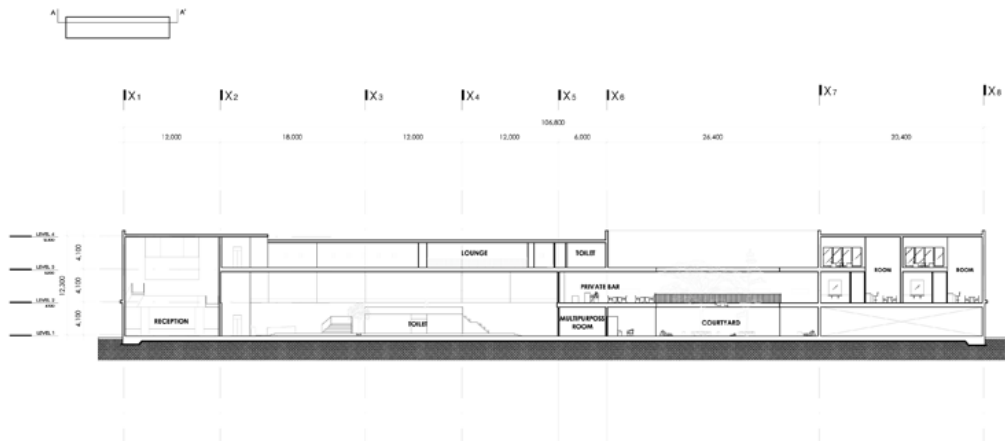
(2) South Exterior Elivation



[그림 4-22] South Exterior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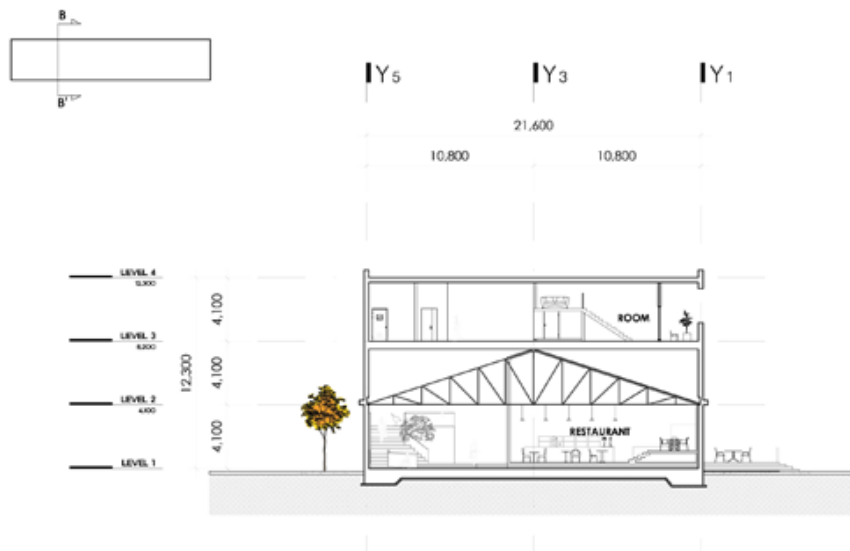
4.3.4 단면도

(1) A-A' section



[그림 4-23] A-A' section

(2) B-B' section



[그림 4-24] B-B' section

4.3.5 외부 투시도



[그림 4-25] 외부 투시도

외부 조경의 재료는 건물의 마감재 안에서 결정 되었으며, 주 출입구 앞 쪽의 조경공간은 안뜰의 형태를 더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건물의 파사드는 기존의 건물의 형태를 기억하는 동시에 하늘과 땅과 평행하여 순응하는 형태를 보인다.

4.3.6 내부 투시도

(1) Reception



[그림 4-26] Reception 내부 투시도

실내공간에서도 기존 건물의 치장벽돌을 그대로 유지하여 과거와 현재의 공
존을 구상하였다.

전시작품은 섬유 예술가 장현승씨의 작품으로, 제주의 꽃자왈을 표현한 섬유
작품이다.

(2) Lobby &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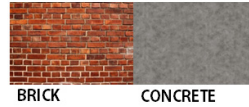
[그림 4-27] Lobby & Cafe 내부 투시도

총고 8.2m인 대 공간에 위치한 로비와 카페이다. 로비의 아래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각각 다른 형태의 천정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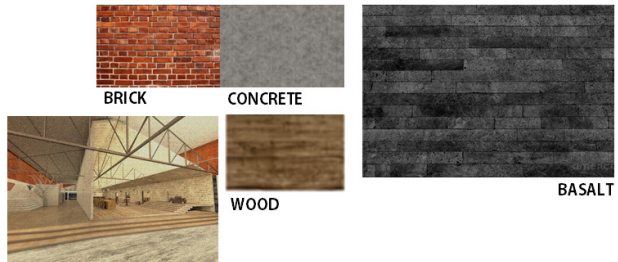
3단의 계단으로 제주의 사층리를 표현하였고, 카페 공간은 과거 건물의 형태를 기억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4.3.7 재료 마감표

■ EXTERIOR



■ INTERIOR



[그림 4-28] 재료 마감표

(1) 외부 재료

건물의 외벽의 마감은 증축된 부분은 코르텐 강으로, 기존 건물의 외벽에는 구조를 보강하던 콘크리트블록 위에 현무암 치장 벽돌로 마감하였다.

(2) 내부 재료

기존 건물의 붉은색 치장벽돌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건물과 새로 형성된 공간의 융화를 도모하였다.

목재와 현무암을 실내 마감재로 사용하여 지역의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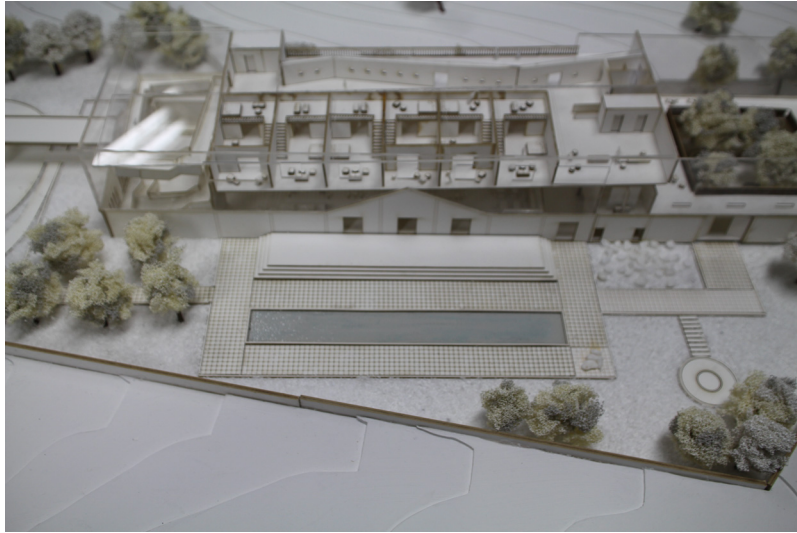
4.3.8 모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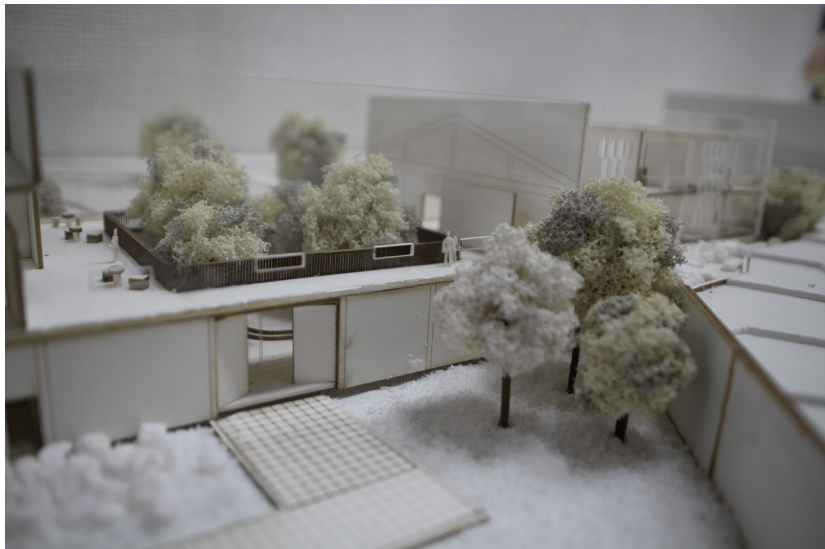
[그림 4-29] 주차공간과 외관



[그림 4-30] 주차공간



[그림 4-31] 조경



[그림 4-32] 안뜰 입구



[그림 4-33] 동쪽 객실



[그림 4-34] 1층 대공간

제 5 장 결 론



제 5 장 결론

건축에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고유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각 풍토만의 적합성과 명료성을 부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내 유희공간을 대상으로 제주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리노베이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현대적 적용방식을 분석하고자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제주 풍토건축의 요소를 도입한 건축물인 이타미준의 ‘포도호텔’과 안도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에서는 건물의 조형과 재료의 사용을 통해 제주전통가옥의 재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공간의 배치와 구성에서는 은유적인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안도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은유적인 공간의 모방이 나타났다. 공간의 배치 방식은 전통공간의 마을과 올래, 주거공간까지의 구성과 유사했다. 공간 내에서는 수공간과 의도적인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올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요소를 공감각적으로 재현하였다. 안도 다다오의 경관유도방식은 단편적인 조형의 모방과 비교해서 작가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났다.

두 사례를 통해 방법론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 뿐 아니라 작가의 시각에 따라 제주 전통 가옥의 조형과 공간이 다양한 방향으로 재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앞서 연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 전통민가의 공간요소와 특징을 적용한 부티크호텔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의 개념은 제주 지역성은 지역풍토에 기반 된 개념에 바탕을 두어 본래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연의 범위는 필지가 위치한 마을단위로부터 시작하였다. 고산리의 옛 명칭이 ‘고산드르’였다는 마을명의 역사에서 지형적 특징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지에 가까운 형태로 증축을 구상하였다.

실내 계획에 있어서는 앞선 사례분석과 같이 전통가옥의 배치와 공간, 조형과 재료로 분류하여 지역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첫째, 제주전통가옥의 배치는 안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역의 으뜸인 당산봉을 형태적 모티브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제주전통가옥에서 안거리와 뒷거리를 갖춘 가옥 배치에 착안 된 것이다.

둘째, 제주전통가옥의 공간은 올라의 좁고 긴 경로와 유사한 공간을 리셉션에 위치한 3층 계단으로 표현하였다. 벽을 타고 올라가며 점차 부풀어 오르는 보이드를 경험하고, 벽에 전시물을 설치하여 거리감에 차이에 따른 감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조형의 경우는 외부의 증축형태와 안뜰의 형태적 모티브를 지역의 지형에서 찾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간 구분에 돌담을 배치하고 현무암을 오브제형식으로 조형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재료의 경우는 앞선 재료 마감도를 통해 지역의 재료인 현무암과 조경식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환경과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공간의 구상을 통해 유희공간의 낙후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재생과 향후 제주 건축적 지역성을 반영하는 건축과 유희공간의 리노베이션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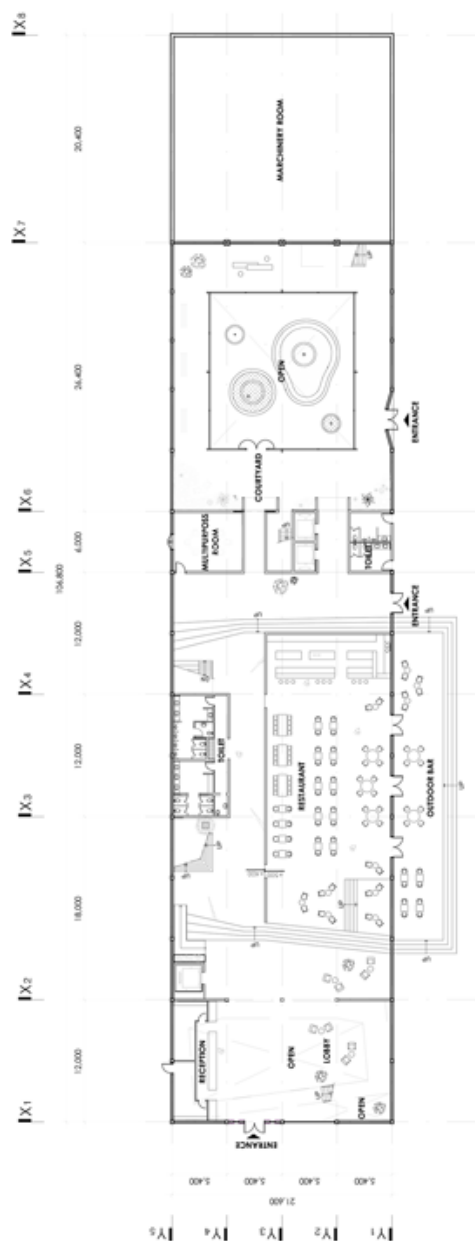
유희공간의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실내건축학과 B2191208 정은형
지도교수 조성익



DRAWING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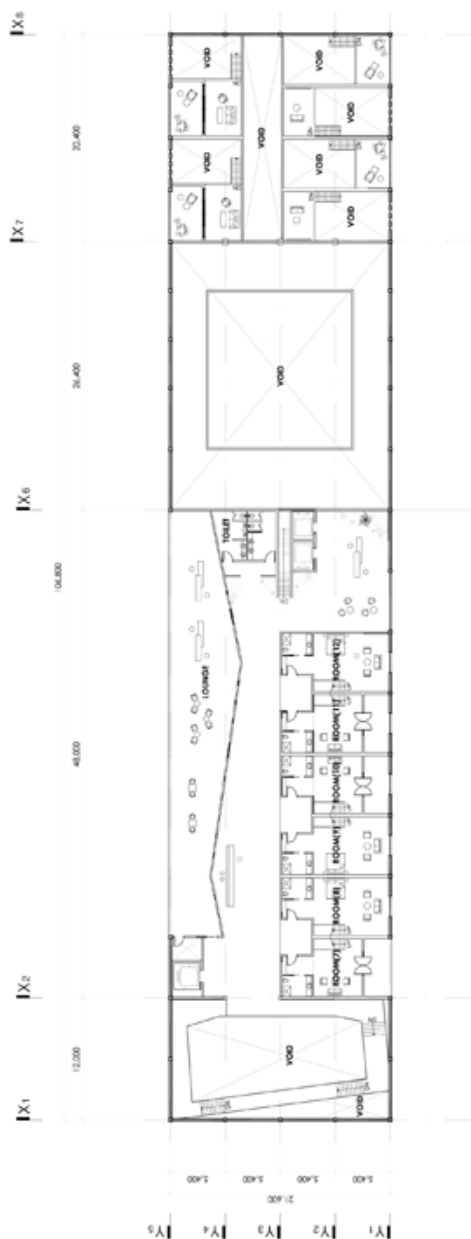
도면번호	도 면 명	출 처	비 고
	일반사항 (GENERAL)		
000	표 지	NONE	
000	DRAWING LIST	NONE	
	유스호스텔 건축 (ARCHITECTURE)		
A - 01	SITE PLAN (배치도)	NONE	
A - 02	1ST FLOOR PLAN	NONE	
A - 03	2ND FLOOR PLAN	NONE	
A - 04	3RD FLOOR PLAN	NONE	
A - 05	SECTION A-A'	NONE	
A - 06	SECTION B-B'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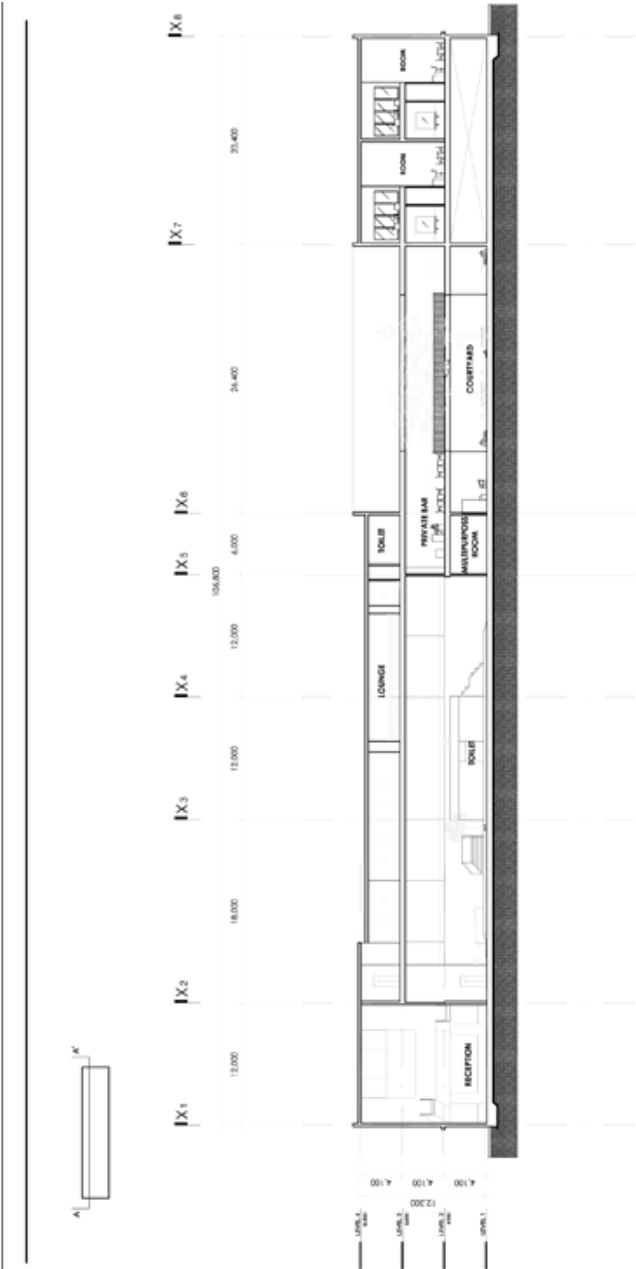
고산리 폐공장 -라노베이션-	프로젝트 Project Title	부티크호텔	도면명 Drawing Title	도면번호 Drawing No.	제출 일자 Submit Date	작성 Drawn by	검토 Checked by	비고 Remarks
				A - 02	2013. 12. 04	JEONG EUN HYOUNG	CHO SUNG K	North Arrow 



고산리 폐공장 -라노베이션-	프로젝트 Project Title 부티크호텔	도면명 Drawing Title 2nd FLOOR PLAN	도면번호 Drawing No. A - 03	작성 Date 2013. 12. 04	작성 Designed by JEONG EUN HYOUNG 검토 Checked by CHO SUNG K	방향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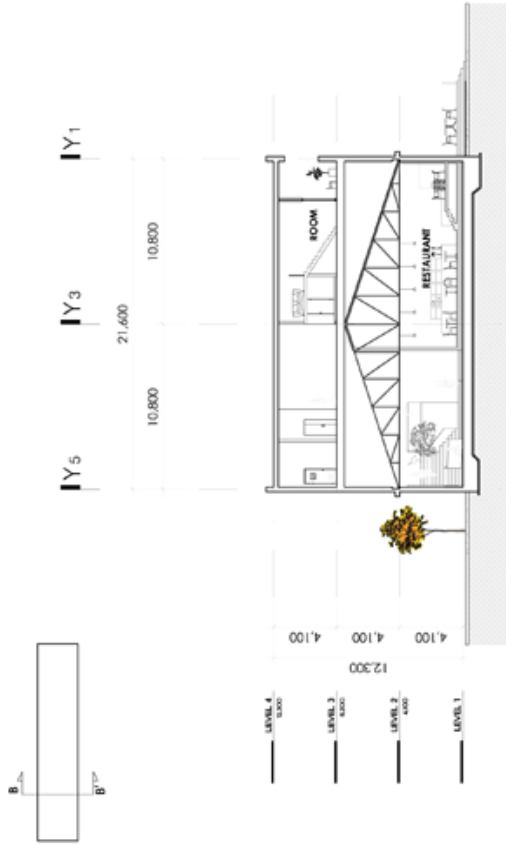


고산리 폐광장 -라노베이션	프로젝트 Project Title	부타크호텔	도면명 Drawing Title	3th FLOOR PLAN	도면번호 Drawing No.	날짜 Date	제시 Designed by		North	
							JEONG EUN HYUNG			
							검토 Checked by			
							CHO SUNG K			



고산리 폐공장 -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Project Title 부티크호텔	도면명 Drawing Title SECTION A - A'	도면번호 Drawing No. A - 08	작성 Date 2013. 12. 04	설계 Designed by JEONG SUN HYOUNG 검토 Checked by CHO SUNG IK	방향 N
--------------------	--------------------------------	--	-------------------------------	----------------------------	--	---------





프로젝트 Project Title	부티크호텔	도면명 Drawing Title	SECTION B-B	SHEET Drawing No.	SHEET Date	DESIGN Designed by	REVISION Checked by	REVISION Checked by
고산리 폐공장 -라노베이션-				A - 09	2013. 12. 04	JEONG EUN HYOUNG	CHO SUNG IK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태일,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초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 2008
- 김태일, 제주건축의 맥, 초판,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 2005
- 이창호 외, 빛과 들, 초판, 핀크스 골프 클럽, 제주, 1999
- 이다미 준, JUN ITAMI, 초판, 건축과 환경, 서울, 1992
- 임채진, 건축의 누드작가, 초판, 살림, 2004
- 안도 다다오, 안도다다오 건축을 말한다. 도서출판국제, 2000,

■ 학위논문

- 양택훈, 濟州道 住居建築의 變遷過程에 關한 調查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1989
- 양택훈, 제주도 주거건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8
- 김기덕, 제주도 기후와 관련된 전통가옥 경관 특성, 건국대학교, 1999
- 임민희,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1
-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
- 백효경, 지역 건축 잡지에 나타난 지역 논의에 관한 연구 : 이상건축에 나타난 지역 건축과 부산성 논의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2005
- 신민철, 이타미 준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6



- 김지은, 맥락주의로 본 안도의 지니어스 로사이, 부산대 석사 논문, 2013
- 이보연, 안도 다다오의 주거관에 기초한 주거건축공간의 디자인 특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12,
- 김수일, <이타미 준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빛의 표현방법과 특성>, 건국대 석사논문 2013,

■ 학술논문

-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 제23권 제3호 통권 제221호, 2007.3
- 황상구, 제주도 당산봉 화산의 형태적 분류, 지질학회지 제37권 제 1호, 2001, p.72



ABSTRACT

A Study of Renovation Plans of Idle Spaces Considering the Locality of Jeju

Advised by Professor **Cho, Sung Ik**

December. 27. 2013

Researched by **Jeong, Eun-Hyoung**

Master of Interior Architecture Dissertation

Major in Interior Architecture

Department of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ccording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has stated its plan to create facilities such as wasted industrial facilities or old military facilities which have been left alone as a part of promoting government projects. Facilities with historic, positional or architectural values are paid attention to as the target of plan for the present, but facilities lost and left with their original function or sites only with hardwares, emptied or inactivated, are left as closed



schools, warehouses or houses, etc. inside Jeju Island. Recycling these places is connected with the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by reducing architectural wastes and improving some lagged images. Additionally, buildings that should be preserved are permitted with liberal attempts than the construction, and some potentials could be anticipated from imperfection through spatial compositions, which the existing buildings haven't aimed at.

This paper tried to suggest plans of renovation that reflects the locality of Jeju over available spaces in Jeju Island.

It is the design considering originality of local environment and culture that reflect locality on the architecture, which endows propriety and clarity only for each climate. Each area holds its own local architectural style, and the traditional houses in Jeju display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ocio-cultural peculiarity as a volcanic island. This kind of peculiarity is paid attention to as a suggestion of any alternative and added-value for specific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has confirmed by class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space into natural environment, humanity&social environment and residential form through theoretic consideration first. Next, it analyzed Jeju Podo Hotel by Itami Jun and Genius Loci by Ando Tadao as some cas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Jeju so as to construct orientations in constructions that consider the locality.



The site for study was based on Kosan-ri, Hankyeong-myeon, selected in the national public offering project in th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common agricultural/mountain/ fishery villages in 2014. Some places would be created, using available spaces in the village with the supports by nation and province, and experiential home-stays would be prepared, using stones, the unique resources in Jeju. Through this study, wasted industrial facilities located at 17-35, Gosannam 8-gil are the targets of plan without any specifications of concrete plan targets, and it suggested the usage of materials that suit to the plans of local residents and usage as a boutique hotel that is the accommodation that has considered the local environment and culture with the material and usage of the area.

It can suggest orientation to the renovation of available spaces and buildings that reflect the regeneration of the area and architectural locality of Jeju by improving some falling-behind facilities of some available spaces by planning the spaces that have reflected local environment and its ordinary culture.

keyword : Locality, Idle Spaces, Traditional House in Jeju, Renovation Plans

